

A Study on the Direction of Father Education Programs Based on Catholic Church Teachings

Hyoungjun Wo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delineates directions for father education consistent with Catholic teaching by synthesizing Church documents, reviews of domestic programs, and an integrated analysis of participation in the St. Joseph Father School in the Diocese of Busan.

[Contents] From March to May 2025, we reviewed Church documents and Korean father-education programs and collected data through a semi-structured focus-group interview with eight Catholic men who had participated in or volunteered for the St. Joseph Father School in the Diocese of Busan. Interview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procedures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The analysis yielded a core category - “the reconstitution of a family-centered model of fatherhood and relational repair mediated by faith-community experience.” The storyline delineates how cracks in authority - and silence-centered paternal scripts were transformed, via the school’s rituals and tasks (e.g., letter writing, foot-washing, blessing prayers, and small-group sharing), into emotional and behavioral strategies that, when applied in daily family life, produced a multi-level realignment across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Conclusions] To sustain and scale change, we propose doctrine - practice integrated modules, a vision - goals - strategy architecture for father education aligned with diocesan family ministry, and maintenance mechanisms - follow-up programs, refresher training, and peer networks - embedded at parish and diocesan levels.

[Keywords] Father education, Father School, Fatherhood, Grounded theory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2023 Research Fund of Pusan Catholic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Hyoungjun Won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iberal Education, Education Innovation Institute) E-mail : wonpetrus@cup.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른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관한 연구

원형준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른 아버지 교육의 방향을 규명하기 위해 교회 문헌·국내 프로그램 검토와 부산교구 성요셉 아버지학교 참여 경험을 종합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25년 3 - 5월 교회 문헌과 국내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부산교구 성요셉 아버지학교에 참여·봉사한 가톨릭 기혼 남성 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집단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기록을 전사하고 근거이론 절차에 따라 개방코딩 - 축코딩 - 선택코딩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핵심범주로 ‘신앙 공동체 경험을 매개로 한 가족 중심적 아버지상 재정립과 관계 회복’이 도출되었다. 이야기선은 과거 권위·침묵 중심 스크립트의 균열이 아버지학교의 의례와 과제(편지쓰기, 세족례, 축복기도, 나눔)를 통해 정서·행동 전략으로 전환되고, 이를 가정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개인 - 가족 - 공동체 차원의 재정렬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결론] 참가자들은 교회가 제시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아버지학교는 그 공백을 메우는 체험적 매개로 작동했다. 가톨릭교회 아버지상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었으나 감정표현의 일상화·정착화·술선수범 등 행동·관계 변화가 뚜렷하였다. 이에 따라 교리·실천 통합 모듈, 교구 가정사목 비전에 정렬된 아버지학교 비전 - 목표 - 전략 체계, 후속 프로그램 및 모임·보수교육·동료 네트워크 등 지속화 장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아버지교육, 아버지학교, 부성, 근거이론

I. 서론

가족 구조와 역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도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부양자 역할에 한정되어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자녀양육에 포괄적인 책임을 지닌 공동양육자로 재조명되고 있다(Lamb, 2016: 2-6). 그러나 한국 사회는 산업화 및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여전히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국한하는 인식이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수행해야 할 정서적·영적 기능을 간과하게 만들어(Hyun, & Oh, 2008: 106), 가정에서 아버지를 존재론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한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아버지에 대한 교육이 단순한 양육 기술이나 부모 역할 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버지됨’(Fatherhood)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성찰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모든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기에 자신의 원가족 속에서 경험한 부성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아버지 교육은 원가족 내에서 형성된 관계 패턴과 정서적 유산을 반영하여, 자녀와의 관계 회복, 나아가 자기 정체성의 신앙적 성숙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Jeong, & Lee, 2024: 1).

국내 아버지교육에서 개신교 기반의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가장 제도화된 대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995년 출범 이후 전국적 확산을 통해 다수 참여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Love, Word, Action, Pray라는 4대 행동양식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행동 변화와 정체성 인식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Kim, 2000: 17). 동시에 효과의 지속성과 생활 맥락으로의 실천적 전이(transfer)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수료 후 2-3개월 시점에서 초기 변화 폭이 일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참여 이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은 유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Min, & Yoo, 2010: 164, 174).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 개입의 효과성은 확인되나 장기적 유지·확장을 위해 후속 지원과 맥락화된 실천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톨릭교회는 가정을 하느님의 가정 혹은 하나의 작은 교회로 이해하며,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 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강조한다(CCC, 2003: 1655, LG, 1965: 11). 교회는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희생, 용서, 봉사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가정 안에서 신앙적 리더십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John Paul II, 1981: 25).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녀의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앙 공동체로서 가정을 인도하고 형성하는 영적 리더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은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토대를 제공한다. 서울대교구, 대구대교구, 수원교구, 마산교구 등에서 가톨릭교회의 신앙 전통과 교리적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교구 가정사목국에서 진행한 성요셉 아버지학교는 가톨릭 신앙과 가정 중심 교

육의 결합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을 심화시키려는 목적을 갖추고 설계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이수자 감소로 인해 현재 아버지학교를 종료한 상태이다. 이처럼 아버지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아버지교육의 재개와 활성화 방향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주교 부산교구 아버지학교 참가자 및 봉사자들이 인식한 가톨릭교회의 아버지의 정체성과 역할을 해석하고, 프로그램 이후 삶 안에서 아버지 역할의 변화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는 아버지 역할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기반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는 아버지상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프로그램 참가 이후 일상에서 아버지 역할을 변화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나?

셋째, 프로그램 참가 이후 아버지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고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가?

넷째, 삶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 부성 역할은 생계부양 중심에서 돌봄·정서 소통·가사 분담을 포함하는 다층적 책무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남성이 정체성 혼란과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기에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근거한 아버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신앙적 소명의식과 삶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데 기초가 될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회문헌과 국내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천주교 부산교구 아버지학교 참가자의 경험 자료를 근거이론적 절차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톨릭 교회 기반 아버지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톨릭교회의 아버지 정체성과 역할

가톨릭교회에서 가정은 인간 사회 새로운 시민이 태어나는 자리이며,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활력이 넘치고 빛을 발하는 신앙의 요람”(CCC, 1997: 1656)이다. 부부의 혼인을 통해 구현되는 가정은 부부생활과 자녀양육을 통해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도와주며 그 안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 더 나아가 교회는 가정 공동체를 작은 교회로 묘사하며, “부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되어야 하며, 각자의 고유한 소명을 특별한 배려로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가르친다(Vat II, 1965: 11)). 이처럼 가톨릭교회는 가정을 생물학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를 넘어 가톨릭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장소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CCC, 1997: 1656 - 1657).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신앙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을 '살아내는 존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즉, 부모는 가정 안에서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자녀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버지의 정체성과 역할은 하느님의 부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권위적이기보다는 인격적이고 영적이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존재로 나타나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아버지를 자녀의 신앙과 인격 형성에 있어 중요한 교육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에서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과 인내, 용서, 자기희생을 통해 가정에서 신앙적·윤리적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받는다. 또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인격적 존중과 함께 현명한 조연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CCC, 1997: 2214; 2223; 2230).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성 요셉의 모범을 통해 더욱 명확히 제시된다. 성 요셉은 단순한 보호자의 차원을 넘어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정을 지키며 일상의 노동과 봉사를 통해 진정한 인간적 부성을 보여주었다(CBCK, 1989: 8). 결국, 가톨릭교회가 강조하는 아버지의 정체성과 역할은 하느님의 부성을 반영한 인격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자이자 신앙의 증인으로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덕의 가치를 전해주는 존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른 아버지의 모습은 단순한 가장이나 생계 부양자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영적 지도자이다.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족을 섬기고, 기도와 말씀, 성사생활에 있어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사랑과 권위의 조화를 실현하며, 자녀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소명을 받았다(CBCK, 1989: 25). 이러한 역할은 권위적인 지시가 아니라 헌신과 인내, 용서와 겸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아버지는 가정이라는 교회 안에서 사목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세속화 그리고 물질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아버지 역할의 혼란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아버지의 권위가 약화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심리적 거리감 속에 형성되는 현실은 아버지 역할의 본질적 의미를 재성찰하게 만든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아버지들이 종종 "실종된 존재"가 되었으며, 신앙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가족과 다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Francisco, 2016: 55). 교회는 아버지들이 단순히 기능적 역할을 넘어 존재론적 차원의 소명으로서의 아버지됨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신앙 교육과 사목적 지지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혼인성사를 통해 결합되는 가정은 "아버지 하느님과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랑에, 더 나아가 교회의 모성적 사랑에 참여하도록 부모들을 부르는 것"이다(John Paul II, 1981: 38). 이처럼 가톨릭교회에서 부성애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모성애는 하느님의 백성을 품어주는 교회를 상징한다. 가정은 부부의 결합으로 빚어진 인간적 사랑을 넘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기존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대표적인 국외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의 Promise Keepers 운동을 제시할 수 있다. Promise Keepers 운동은 1990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미식축구 감독이었던 빌 맥카트니(Bill McCartney)에 의해 창시된 개신교 기반의 남성 운동으로서 남성들의 신앙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성 회복을 위한 7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Williams, 2000: 1).¹⁾ Promise Keepers 운동은 남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영적이고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강조한다. 이는 기존의 아버지 부재 현상과 이로 인한 가족의 기능적 붕괴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Ken, 2011: 26).

초기 미국의 Promise Keepers 운동은 한국 사회의 가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 역할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의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근간이 되었다. 1995년 10월 시작된 국내 대표적인 아버지교육인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첫 모임 이후 교회, 관공서, 군대, 교도소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국제적으로도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Min, & Yoo, 2010: 160). 설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아버지의 왜곡된 권위를 바로잡고 가정 내 아버지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Han, & Kim, 2016: 481).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일반적인 강의 중심 프로그램과 달리 상담적 설교를 기반으로 한 전인적 교육으로 구성되며, 치유적·교정적·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Min, & Yoo, 2010: 162).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영향력, 남성성, 사명, 영성, 가정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총 5주 동안 이루어진다. 각 주차의 교육은 조별 나눔, 개인 간증, 다양한 예식을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변화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Han, & Kim, 2016: 475).

프로그램 참여자는 매주 숙제를 부여받아 이를 가정 내에서 실천해야 한다. 1주차 아버지의 영향력에서는 ‘아버지에게 편지쓰기’, 2주차 아버지의 남성성에서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및 아내에게 편지쓰기’, 3주차 아버지의 사명에서는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및

1) 7가지의 약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둘째, 다른 남성과의 활발한 교제를 통해 신앙을 성장시킨다. 셋째, 영적, 도덕적, 윤리적, 성적 순결을 지킨다. 넷째, 사랑과 보호, 성경적 가치를 통해 강한 결혼과 가정을 구축한다. 다섯째, 교회의 사명을 지원하고 사목자를 존중하며 기도한다. 여섯째, 인종과 교단의 장벽을 넘어 성경적 연합을 실현한다. 일곱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한다(출처 : <https://promisekeepers.org/about-us/7-promises/> 2025. 4. 19. 검색).

자녀에게 편지쓰기’, 4주차 아버지의 영성에서는 ‘수료소감문 작성’ 등의 과제가 있다(Han, & Kim, 2016: 479). 또한 각 주차별로 허깅(Hugging), 축복기도, 촛불 예식, 세족식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예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5주차 아내를 초청하여 가정 내의 변화를 공유하고 세족식으로 서로를 섬기는 행사를 가진다(Min, & Yoo, 2010: 164).

참여자들은 교육 참여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며,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Han, & Kim, 2016: 484). 특히, 이 과정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낸다(Lee, 2022: 101). 결과적으로,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이 변화된 삶을 지속하고 타인에게 나눔을 실천하도록 이끌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Min, & Yoo, 2010: 161).

천주교 부산교구 가정사목국에서 주도했던 성요셉 아버지학교는 2005년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대리구 인덕원성당에서 첫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성 요셉을 아버지상의 모델로 하는 가정 성화 운동이다. 성요셉 아버지학교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정체성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가정폭력이나 이혼 증가 등의 위기에 대한 교회의 응답으로 탄생하였다(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2025. 4. 20.). 성요셉 아버지학교는 가톨릭 신앙에 기반한 삶과 부모로서의 성숙을 촉진하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초대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아버지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화해와 용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도록 돕는다(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2025. 4. 20.). 이를 통해 성숙한 좋은 아버지로 거듭나게 하고, 가정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2025. 4. 20.). 특히, 가정의 중심으로서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신앙인으로서 가정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을 교육 철학으로 한다. 가톨릭 신앙 전통 속에서 성 요셉의 믿음과 사랑, 책임감을 본받아 건강한 아버지상을 정립하고자 하며, 이를 교회 공동체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교회의 사도적 사명으로 이해한다(Catholictimes, 2013. 5. 7.). 즉, 가톨릭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정체성과 가정 성화의 관점에서 신앙과 가정 생활의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 철학을 갖는다.

천주교 부산교구 가정사목국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주 동안 진행되는 성요셉 아버지학교 총 11차례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회복, 남성성과 신앙적 사명의 자각, 아버지 역할의 영향력 인식, 실천적 헌신으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유도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교회 신앙 안에서의 아버지 교육을 도출한 독창성과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²⁾

2) 천주교 부산교구 아버지학교 자료는 내부문건으로 봉사자용 일정표 및 강의록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해당 자료는 출판물이나 인쇄본으로 발간한 자료가 아니기에 해당 자료의 출처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서 출처를 밝힌다.

성요셉 아버지학교 1-4주차의 핵심은 부성(父性)의 기능에서 존재와 소명으로의 전환이다. 1주차는 한국 사회의 부양자 중심 부성관을 비판하며, 원가족 경험의 치유와 재해석을 통해 아버지됨을 존재론적 정체성으로 성찰하게 했다. 2주차는 성경적·심리학적 관점을 통합해 건강한 남성성을 사랑과 책임, 감정적 개방성과 관계 지향성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신뢰와 소통의 토대를 제시하였다. 3주차는 아버지의 물리적·정서·신앙적 존재감이 자녀의 정체감·자존감·도덕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강조하며, 헌신적 부성의 긍정적 대물림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4주차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느님을 본받는 사명으로 정식화하여, 자녀의 존재적 원천·자부심·목자·희생(또개지는 뺨)이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 영적·도덕적 지도성과 실천을 요청하였다. 요컨대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를 권위적 제공자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 희생과 동행으로 구현되는 신앙적 주체로 재구성한다. 5주차는 1박 2일간 진행되는 가족캠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앞선 1-4주차의 이론적·정서적 성찰을 실제 가족관계 안에서 구현하고 체험하는 실천적 절정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가족캠프는 아버지 교육의 내용을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지 ‘배운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핵심으로 구성되며, 아버지와 가족 간의 정서적 소통, 공동활동, 신앙적 갱신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국내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핵심 한계를 보인다. 첫째, 그리스도교적 관점을 표방하더라도 실제 구성은 심리·교육적 훈련과 역할 기능 중심에 머무는 경향이 크다.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복음주의적 성경 중심 영성이라면 성요셉 아버지학교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영성을 표방한다. 후자의 경우, 성가정 가장 모델로서의 성 요셉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명료하지 않고 아버지됨의 존재론적 의미가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신학·철학적 기반이 약해 교육 내용이 실용·일회성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요셉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에서 교의·영성·인간관의 통합적 관점이 미흡하여 신앙과 실천의 연결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 셋째, 성요셉 아버지학교의 경우, 지속성과 확장성이 부족해 단기 개입(1일, 2~3회기)에 그치고 단계적으로 체계화되거나 세분화되어 장기적인 사목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넷째, 대상자 스펙트럼이 협소해 중장년·리더층·재혼가정 등 특수 집단이 배제되기 쉽고, 원가족에서 부성 부재·부정 정서를 경험한 참가자에게는 긍정적 아버지상 형성에 앞선 관계 회복을 위한 심층 개입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맞춤형 설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존재론적 통찰을 통합하는 아버지교육의 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요셉 아버지학교의 참가자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톨릭교회의 사목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며 가톨릭교회에서 제시하는 부모 및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기존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틀과 구조를 고찰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에서는 천주교 부산교구 아버지학교 참가자 및 봉사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통해 교회의 교리와 실제 현장의 요구가 통합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천주교 부산교구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봉사한 경험이 있는 성인 기혼 남성 중, 가톨릭 세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천주교 부산교구 아버지학교 프로그램 봉사자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는 홍보 문자 및 안내 메일 발송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하며 참가를 희망한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상세 설명과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를 메일로 발송하여 정보를 취합하였다.

참가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로 총 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7명, 40대가 1명이었다. 가톨릭교회에서 신앙생활 기간은 21년 이상이 5명, 16 - 20년이 2명, 11 - 15년이 1명이었다. 자녀 수는 3명 이상이 2명, 2명이 4명, 1명이 2명이었다. 봉사자와 참가자 경험 유형으로

<표 1> 인터뷰 참가자 특성
<Table 1> Interviewee Characteristics

연번	연령	신앙생활기간	자녀 수	경험 유형	봉사참여 횟수	후속 모임 참가 여부
참가자1	50대 이상	21년 이상	2명	봉사자	4회 이상	참석
참가자2	50대 이상	21년 이상	1명	참가자	-	불참
참가자3	40대	11-15년	3명 이상	참가자	-	불참
참가자4	50대 이상	16-20년	2명	봉사자	2-3회	불참
참가자5	50대 이상	16-20년	1명	봉사자	2-3회	참석
참가자6	50대 이상	21년 이상	2명	봉사자	4회 이상	참석
참가자7	50대 이상	21년 이상	2명	봉사자	4회 이상	참석
참가자8	50대 이상	21년 이상	3명 이상	봉사자	4회 이상	참석

는 ‘봉사자’가 6명, ‘참가자’가 2명이었으며, 봉사참여 횟수는 4회 이상이 5명, 2-3회가 2명이었다. 후속 모임 참여 여부는 ‘참석’이 5명, ‘불참’이 3명이었다. 천주교 부산교구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후 참가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종료하여 참가자와 봉사자, 연령 등을 균등 배분하여 대상을 표집할 수 없었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5년 3-5월 문헌고찰을 통해 가톨릭교회 문헌과 두란노·성요셉 아버지학교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를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25년 4월 모집하였고, 5월 3일 반구조화 면담을 대면 집단 초점 인터뷰(약 2시간 30분)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문항은 아버지상 자각, 신앙적 역할 인식, 프로그램 경험과 변화, 향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모든 면담은 카메라와 별도 녹음기로 기록 후 AI 전사(네이버 클로바)를 1차 수행하고, 연구자가 원자료를 반복 청취·대조하여 정교화하였다. 최종 전사본은 엑셀로 정리하여 발화 단위·문맥을 확인하며 분석하였다.

<표 2> 인터뷰 질문 내용

<Table 2> Interview Questions

영역	면담 질문
아버지상	일반적 아버지상
	나의 아버지상과 나의 모습
	아버지의 역할
가톨릭교회 가르침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른 아버지상에 대한 이해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경험	참여 동기
	인상깊은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선사항	과제 및 역할 수행 고충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제언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은 사회연구로부터 체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론을 발견하고 생성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은 글레이저(B. Glaser)와 스트라우스(A. Strauss)에 의해 처음 제안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실제 자료로부터 이론을 생

성하는 귀납적 접근으로 현장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 안에 내재된 의미와 관계성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자 할 때 매우 적합한 분석 틀이다(Glaser, & Strauss, 1967: 1; 3.).

본 연구에서는 성요셉 아버지학교 참가 및 봉사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전통적으로 특정한 이론이나 가설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의 실제 자료로부터 개념과 범주를 귀납적으로 도출하여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Strauss, & Corbin, 2014: 28). 이는 아버지의 교육 참여가 개인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의 틀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의미 구조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본 연구는 아버지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부성의 역할과 그 속에 내재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탐색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근거이론의 귀납적 접근과 방법론적으로 밀접하게 부합한다. 따라서 이론을 검증하거나 적용하기보다는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범주와 설명 틀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거이론의 적용은 연구의 목적 및 질문과 일치하며, 참여자 중심의 분석을 통해 이론적 통찰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우스(Strauss)와 콜빈(Corbin)은 3단계 분석 모델의 제안을 따른다. 1단계는 개방 코딩(Open Coding)으로 인터뷰에서 수집한 녹취 자료를 전사한 후,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분절한다. 이후 각 단위에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들끼리 묶어 범주로 분류한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가능한 모든 주제를 포착한다. 2단계는 축 코딩(Axial Coding)으로 개방 코딩에서 도출된 범주 간의 인과 관계, 맥락, 상호작용 패턴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3단계는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축 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핵심 범주 중심으로 통합한다. 이 과정에서는 전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심 이야기 구조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므로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심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과제번호: 20250110-01-0001).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절차, 자료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 연구 참여 철회의 자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자료 속에 내재한 의미를 분해하고, 이를 개념화(conceptualization)와 범주화(categorization) 과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초기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사 자료를 한 문장 단위로 분절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유사한 성격에 따라 하위영역과 상위영역으로 조직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참여자 경험 속 반복되는 패턴과 차이를 식별하게 하며, 이후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해 핵심범주를 규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Strauss, & Corbin, 2014: 222-223).

<표 3>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봉사 및 참가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

<Table 3> Concepts and Categories of Father Education Program Service and Participation Experiences

개념	하위영역	상위영역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심화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 심리적 특성	아버지 정체성에 대한 이해
정서적 거리와 복합적 감정		
심리적 안정감과 모범적 역할		
자기 동일시와 정체성 수용		
조용한 헌신과 책임감	행동적 · 실천적 특성	
가족 내 실천적 역할 수행		
정서적 표현과 신체적 실천		
가정 내 권위적 통제자	권위 및 통제	
관계 단절과 심리적 상흔		
경제적 책임과 역할 변화		
과거 아버지상에 대한 이해	세대 및 역할의 변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이해
현대 아버지상에 대한 이해		
개인 경험과 변화 인식		
신앙을 통한 관계 재정립	신앙을 통한 실질적 변화	아버지교육 이전 가톨릭 교회 아버지상에 대한 이해
봉사 중심의 제한된 역할의 아버지 모임	성당에서 아버지 역할	
아버지학교를 통해 교회 내 아버지 교육의 각성	아버지 교육의 부재 인식	
자비로운 아버지상	신앙인으로서 아버지상	
정의와 의로움의 아버지상		
선하고 착한 신앙인		

<표 3>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봉사 및 참가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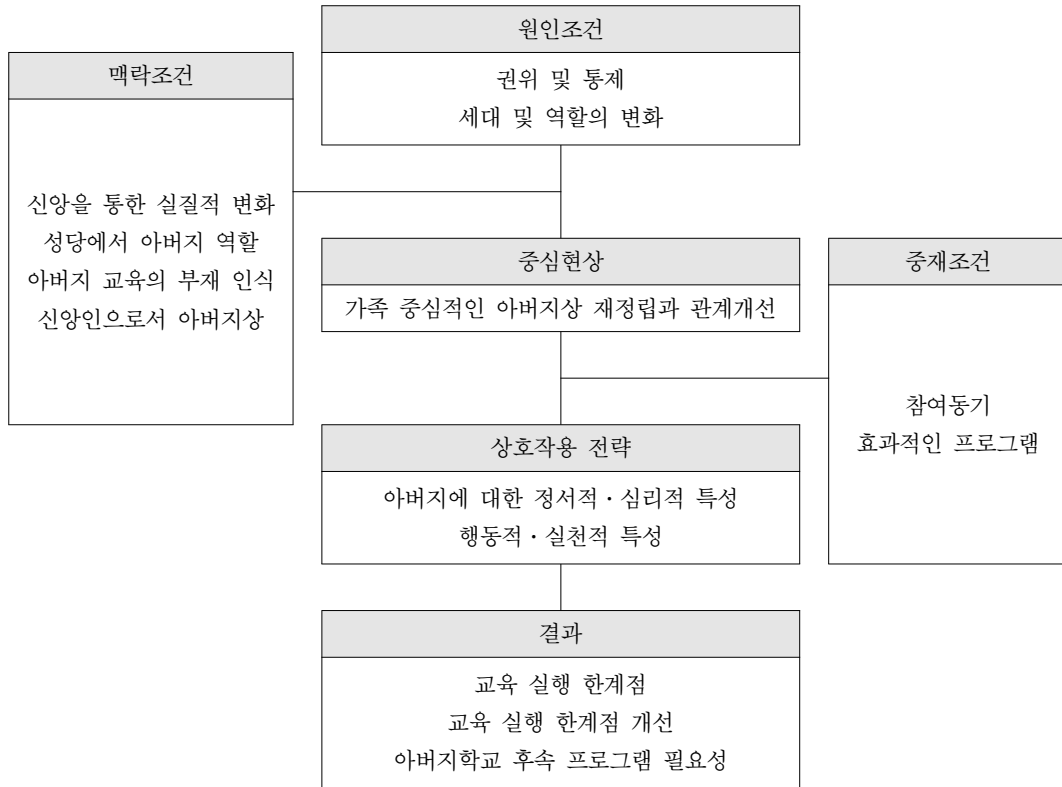
<Table 3> Concepts and Categories of Father Education Program Service and Participation Experiences

개념	하위영역	상위영역
비자발적 참여	참여동기	아버지교육 경험
자발적 참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효과적인 프로그램	
가족과 관계 개선 프로그램		
아버지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나눔		
아버지상과 역할에 대한 성찰	가족 중심적인 아버지상 재정립과 관계개선	아버지교육 이후 아버지상 변화
가족중심의 신뢰를 지키는 아버지로 변화		
실질적으로 술선수범하는 아버지로 변화		
반복성의 피로감	교육 실행 한계점	아버지교육 개선안
대·내외적 요인으로 운영 제약		
개인적 실천의 한계		
운영 내용 개선	교육 실행 한계점 개선	
운영 방식 개선		
지속성과 확장성 확보		
지속적 실천을 위한 공감과 소통의 장 마련	아버지학교 후속 프로그램 필요성	
체계적이고 유형화된 심화 프로그램		

2. 축코딩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하위범주를 선별하고, 스트라우스(Strauss)와 콜빈(Corbin)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여 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축코딩의 목적은 범주를 중심현상, 원인조건, 맥락조건, 중재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로 조직화함으로써 연구현상을 설명하는 체계적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다(Strauss, & Corbin, 2014: 165-166.).

<표 4>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봉사 및 참가 경험에 패러다임
<Table 4> Paradigm for Father Education Program Volunteer and Participation Experiences



1) 원인조건

축코당에서 원인조건(causal conditions)은 중심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배경 요인을 의미하며, 현상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된다(Strauss, & Corbin, 2014: 166-167). 이는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중심현상의 발생을 촉발하거나 강화하는 사건, 환경, 구조적 요인을 식별하는 과정으로 이후 맥락 · 중재조건 · 전략 · 결과와의 관계 설정을 위한 핵심 토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의 원인조건은 ‘권위 및 통제’, ‘세대 및 역할의 변화’로 나타났다. 먼저, 권위 및 통제 영역에서 하위 개념으로 ‘가정 내 권위적 통제자, 관계 단절과 심리적 상흔, 경제적 책임과 역할 변화’를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이 회상하는 과거의 아버지상은 가정 밖에서는 온화하지만 가정 내에서는 엄격한 통제자로서 강한 규율과 제재 중심의 자녀교육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아버지상은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경험은 현재까지 심리적 상흔으로 남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상실과 폭력을 경험하게되고 부정적 감정인 아버지상을 갖게 되었다.

저희 아버지는 과묵하기도 하지만은 좀 엄격하신 경우 있죠. 저희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은 제재가 많았습니다. 뭐 이런 거 식사 예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이 집에서 하는 예절 그런 것들이 지금도 하나씩 기억이 나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지금 현재 오십이 넘었는데 평생 반 백 년의 몸에 이제 습관이 될 정도로 이 때 죽도(竹刀)로 맞아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에는 반항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어디 가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주눅이 들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참가자4).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엄격한 게 아버지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신게 아닌가. 엄격하게 자기가 편할려고 애들한테는 뭐 이렇게 제대로 말하고 저는 아버지와 대화보다는 가정 예의범절 이런 거는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참가자2).

또한 ‘세대 및 사회 변화’에 따라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이 강조되면서 기존 아버지상의 한계가 부각되었다. 해당 영역의 개념은 ‘과거 아버지상에 대한 이해, 현대 아버지상에 대한 이해, 개인 경험과 변화 인식’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과거의 아버지상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통적 가장으로 감정보다 책임과 권위를 우선시하며 권위적 태도로 대표되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확고한 책임감을 지닌 존재로 희생과 감내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반면 현대의 아버지상은 여전히 생계 책임을 지니지만 역할이 보다 유연해지고 감정 표현·공감·칭찬 등 정서적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과거의 과묵하고 감정을 억제한 모습에서 벗어나 가족과 신앙·감정을 공유하며 일상을 함께하는 애정 어린 존재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인정받기 어려웠던 경험과 대비되어 감정 표현을 실천하는 아버지상이 긍정적으로 재인식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옛날에는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일해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 와야 되는 존재 엄마는 그 집에서 살림살이만 하기 때문에 내자 혹은 안사람이라는 표현을 옛날에는 썼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대부분 워킹맘으로 어떤 형태든지 같이 배우자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그런 경제권을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부터 요즘은 많이 조금 유연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참가자1).

예전에는 아버지가 돈만 벌해주면 됐는데 요즘은 그 와이프한테도 잘해야 되고 약간 멀티 같은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한테 어떤 쏟아내는 에너지는 조금 부족한 약간 어떻게 보면 외롭기도 하고 좀 외로운 늑대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것도 많죠(참가자7).

2) 맥락조건

축코딩에서 맥락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중심현상이 전개되는 구체적 상황과 환경적 맥락을 의미하며 현상의 성격과 양상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trauss, & Corbin, 2014: 167). 이는 개인의 인식, 사회·문화적 배경, 제도적 환경 등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인을 포괄하며, 전략 선택과 실행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제약 또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중심의 아버지상을 재정리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맥락적 조건의 하위영역은 ‘신앙을 통한 실질적 변화, 성당에서 아버지 역할, 아버지 교육의 부재 인식, 신앙인으로서 아버지상’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아버지교육 이전에도 신앙적인 환경 안에서 아버지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참가자4의 경우, 모든 가족이 성당 활동에 동참하면서 홀로남게 된 아버지가 예배자 교리 과정과 공동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신앙 실천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부분을 보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가족 안에서 신앙적인 문화가 아버지의 변화를 촉진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늘 우리 밥 먹는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 식사 전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덕분에 이게 또 많이 조금씩 가량이 옷 젖듯이 이렇게 지나온 하나의 기적이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참가자4).

다음으로 성당에서 아버지들의 활동은 주로 주일학교 중심의 노력 봉사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간식 준비나 아이들과의 놀이 등 물리적 지원은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신앙적 지도나 정서적 지원과 같은 심층적 역할은 거의 부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역할 인식은 아버지들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축소시키며 봉사 외 영역에서의 주체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OO 성당에 OOO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 분기에 한 번 (주일학교 간식으로) 음식을 한 번 해준다든지. …… 물질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잘 보여주고 애들이 잘 놀아준다는 이런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본당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깊이는 생각 안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참가자7).

아버지 학교 교육을 받기 전에는 그냥 본당에서 아버지로서 내 아이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본당의 주일 학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봉사활동을 할까 하는 그런 쪽 외에는 특별히 생각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참가자1).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아버지학교 이전까지 교회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일부는 자모회·자부회 활동을 통해 제한적으로 관련 내용을 접했으나, 이는 일회성에 그쳐 지속적·구조적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아버지학교 참여를 통해서 ‘아버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방향을 제시받았으며, 이러한 경험은 부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심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교육이 실질적이고 인상적인 변화를 유발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아버지 학교 이전에 교회 가르침도 크게 제가 느끼기에 실질적인 아버지의 교육은 딱히 기억나지 않고요.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가정 안에서의 작은 변화가 올 정도지, 아주 큰 변화가 올 정도의 그런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 아버지 학교 경험이 없었다(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크게 와닿았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참가자8).

저도 아버지 학교 이전에 ……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상이라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시킨다? 그렇다고 그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에 우리가 깊이 아버지라 하는 그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 정체성 안에 내가 그 아버지로서의 삶을 고민하게 화두를 던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참가자6).

참여자들은 가톨릭교회가 제시하는 아버지상을 의로움과 희생을 지닌 존재,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품는 자비로운 인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종종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일반적 신앙 윤리에 머물러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었다. 신앙적 맥락에서 아버지는 자비뿐만 아니라 잘못에 대해 단호히 분노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존재로 이해되었으며, 아버지교육 이후에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정생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실천이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신앙과 일상생활이 결합된 아버지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교육의 아버지 돈 보스코 성인 그리고 …… 의로운 아버지, 그래서 성 요셉 성인이 의로움의 대명사가 아닌가. …… 그리고 아버지학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죠. …… 근데 교회의 가르침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는 무한정 그냥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그런 아버지라기보다는 ……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럴 때는 아버지는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참가자1).

3) 중심현상

축코딩에서 중심현상(core phenomenon)은 연구에서 다루는 사건이나 경험의 핵심적 주제이자 다른 모든 범주가 귀속되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Strauss, & Corbin, 2014: 184). 이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며 원인조건·맥락조건·중재조건, 그리고 전략과 결과를 연결하는 의미망의 중심에 위치한다. 중심현상은 개별 사건을 넘어 지속적·과정적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선택코딩 단계에서 핵심범주로 확장될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심현상은 “가족 중심적인 아버지상 재정립과 관계개선”이다. 중심현상의 하위영역은 ‘아버지상과 역할에 대한 성찰, 가족중심의 신뢰를 지키는 아버지로 변화, 실질

적으로 술선수범하는 아버지로 변화'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은 아버지학교 경험을 통해 과거에 내면화되었던 권위적·거리감 있는 아버지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가족 중심의 신뢰를 형성·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예전에는 그냥 신앙인으로서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남한테 폐 끼치지 않아야지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이후에는 조금 더 내 시선을 가정으로 돌리고 또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한 것이 뭔지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역할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저는 아버지 학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참가자1).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실제 이제 이 가족 구성원들과 친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사실 몰랐던 거죠. ……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맺었던 것도 좀 못 풀고 그러니까 자녀들과 풀고 아내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내하고 같이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참가자6).

다음으로 가족 중심의 신뢰를 지키는 아버지로의 변화는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안정감 제공, 의사소통 강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한 행동 변화를 포함한다.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중시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의 중심축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대화를 하려 했고 특히 딸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고 어려울 때 멀리 가 있을 때 통화도 많이 했고, 제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딸하고 밤에 자기가 뭔가 일이 있었는지 1시간 40분을 갖다가 밤에 통화를 했더라고요. 전화기 불 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참가자5).

저도 비슷한 얘기들인데요. …… 중심은 잡되 굉장히 유연한 그런 대쪽 같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일 것 같다. 거기에 과거에 굉장히 딱딱하던 그런 독선이나 굉장히 무거운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좀 흔들릴 때는 흔들리 부분이 좀 흔들려도 주고, 그렇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그게 아버지의 모습 제가 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참가자7).

마지막으로 술선수범하는 아버지로의 변화는 말보다 행동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사 분담, 자녀 교육, 부부 관계 개선 등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족 내 긍정적인 변화와 관계 개선이 촉진하였다.

아버지 역할이 저는 이제 가족이 함께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저도 이제 신앙을 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저도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하지만 내 스스로가 먼저 자녀들한테

말보다는 행동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같이 이끌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아버지 앞에서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같이 참여하고 …… 그런 부분들이 이 가족과 이 같이 뭐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참가자3).

이전에는 그냥 가장 집에서의 가장으로서 그냥 대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잘 하든 못하든 가족에게는 내가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아버지 학교 이후에는 함께하는 내가 먼저 술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 제 스스로가 가장 많이 바뀌어서 좋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 굳이 평가를 한다면 내가 많이 바뀌었다(참가자1).

이러한 변화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방식과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교육 경험은 아버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 중심의 관계 회복과 유지라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중재조건

축코딩 과정에서 중재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중심현상과 이에 대한 행위·상호작용 전략 사이에서 작용하는 맥락적 변수로 규정한다. 이는 특정 현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완화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인식과 태도, 제도적 환경,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포함한다. 중재조건은 중심현상의 전개와 결과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trauss, & Corbin, 2014: 177).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재조건의 하위영역은 ‘참여동기, 효과적인 프로그램’ 요소로 구분한다. 우선 참여 동기는 자발적·비자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며 프로그램 몰입도와 효과를 결정짓는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

비율로 본다면 자발적으로 온 확률이 제일 많고 높아요. …… 한 40% 정도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아내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아내의 요구라기보다는 아내와의 어떤 대화 안에서 이거 갔다 오자. 그래서 한 40% 정도는 자발적인 의지가 많았고 나머지는 다양합니다(참가자1).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누나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면 된다 가라’ 갔는데.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어색하고,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왔냐 얘기하니까(참가자2).

다음으로 아버지학교 경험은 실질적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아버지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매개 요인이었다.

처음에 좀 낮가리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조금 긴장이 풀어지면서 마이크 주면 안 나서죠. 나중에는 마이크를 안 놓습니다(참가자8).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 축복 기도를 우리 할 수 있다는 그걸 또 자녀들한테 그렇게 과제로 또 이렇게 주고 있는 그 매주 매주 과제에 이게 굉장히 또 크게 또 체험을 할 수 있던 기회이고(참가자3).

아버지와와의 화해 편지 쓰기 처음 봤을 때 편지를 쓰라고 할 적에 참 막막했죠. 아버지하고 화해해가지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편지 쓰기 그게 아마 저는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참가자4).

상황극 역할을 할 적에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을 바꿔라고 했을 때 애들은 어른 노릇하고 우리 저희들은 아이 노릇 하면서 똑같이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그 애들은 그 애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우리가 저랬구나’ 이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참가자5).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에 대한 참여자들의 대응 행동을 행동적·상호작용적 전략으로 개념화한다. 이는 중심현상 발생 이후, 참여자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한 의도적 행동이나 상호작용의 양상을 설명하는 범주로, 대응 전략의 방향성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trauss, & Corbin, 2014: 167-167).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하위영역은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특성, 행동적·실천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우선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특성으로 연구 참가자들은 아버지의 삶과 감정을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과거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 측면을 닦고자 하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 특히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상실감, 경제적·정서적 부담 속에서 침묵과 회피로 대처했던 아버지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내면의 헌신과 고통에 공감하게 되었다. 관계적으로는 ‘듣지만 정서적으로 먼 존재’라는 상징적 이미지와 함께 엄격한 훈육으로 형성된 거리감과 단절 경험이 공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여준 무언의 책임감, 세심한 배려, 신앙을 통한 가정 지탱은 심리적 안정감과 본보기로 작용하였다.

군대 제대를 앞두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제가 느꼈던 아버지가 또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그 모습이 마침 또 아버지 학교를 와서 제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쓴 것 같아요(참가자3).

저는 아버지를 인식할 때 정말 롤모델 같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했던 기억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OOO아, 아무리 큰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니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거(참가자6).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그냥 그냥 큰 등작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를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버지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한 적은 크게 많이 생각이 많이 안 나거든요. 나한테는 큰 존재긴 큰 존재인데 그냥 등판 같은 그냥 뒤에서만 바라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약간 거리감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생기게 되더라고요(참가자2).

다음으로 행동적·실천적 특성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아버지를 묵묵한 헌신과 책임감의 상징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길으로 드러나지 않는 희생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가정의 조용한 중심축이 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아버지는 아내의 평생 동반자이자 자녀에게 삶과 인간관계에 관한 교육을 실천적으로 전하는 본보기로 작용하였다. 과거에는 가족 내 의사결정의 주도적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으나 현대에는 경제적·정서적 영역을 함께 나누는 관계 중심적 역할로 변화하였다. 실천적 특성은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과제를 통해 구체화되며,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본받아 일상에서 긍정적 표정을 실천하는 태도 역시 중요한 행동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천적 행동은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 강화를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역할이나 상이 좀 제가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어려운 것보다는 밝은 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주차장에서부터 인상 쓰고 밖에서 기분 나쁜 거 확 치고 들어갈 때가 제법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짹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안 좋아도 제가 밝으면 밝아지더라고요(참가자8).

저는 아버지라는 자리는 그 가족 꼭 아버지라고 하면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것은 그 아버지이면서 또 아내 배우자 입장으로서 본다면 그 평생의 반려자인데 그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그루터기라고 생각합니다(참가자1).

지금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희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면서도 그걸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것도 결국에는 희생이 바탕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좀 희생과 감내의 아이콘이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참가자8).

6) 결과

축코딩에서 결과(consequences)는 중심현상과 이를 둘러싼 전략·상호작용이 초래하는 변화

와 성과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14: 168). 결과는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긍정적·부정적 양상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결과 분석은 현상의 파급효과를 규명하고, 실천적 개입이나 정책 제안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결과의 하위요인은 ‘교육 실행 한계점, 교육 실행 한계점 개선, 아버지학교 후속 프로그램 필요성’으로 구분하였다.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은 반복성과 대·내외적 제약, 개인적 실천의 한계 등교육 실행의 구조적·환경적 제약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계 개선을 위해 교육 내용과 방식의 개편, 지속성과 확장성 확보가 요구되었다. 또한 교육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감과 소통을 촉진하는 후속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심화 교육은 참여자의 실천 동기를 강화하고, 가정 및 공동체 차원의 긍정적 변화를 지속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우선 교육실행의 한계점에서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내용 반복으로 인한 참여 피로감, 코로나19 및 제도적 지침에 따른 운영 제약, 그리고 지속적 실천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부재가 주요 한계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효과의 장기적 유지와 실천 동력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습관화와 체계적 후속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저도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딸하고 좀 달라가지고 허그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이게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애들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봉사자 들어갔을 때 그 주는 또 5주는 또 해요. 같이 근데 그게 또 떨어지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지금은 이제 애들하고는 허그를 안 하고 있는데(참가자7).

여자애들과 발육이 빠르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빠하고 가슴도 닿고 이런 게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축복 기도를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이 잘 때라도 해줘라(참가자8).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들은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 대해 내용·운영·지속성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첫째, 프로그램 내용 개선을 위해 하이파이브·악수 등 대안적 신체 접촉 방식을 도입하여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영상·편지쓰기의 중복을 줄이며 결심 봉헌문 작성을 통해 아버지상 재정립 해야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운영 방식 개선으로 봉사자 정년제 폐지, 소규모 운영 및 1:1 매칭 도입, 봉사자 회비 일정부분 자부담과 휴대폰에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자녀교육 등의 규율 정비가 제안되었다. 셋째,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인원에도 프로그램을 유지시키고, 봉사자 후속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앞서 아버지학교를 재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실제 문제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봉사자 나이 정년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종교 상관없다. 그다음에 자녀를 둔 아버지에서 그냥 중고등학생을 둔 아버지에서 대상이 나중에는 그럼, ‘대학생 자녀 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대상이 자녀를 둔 아버지로 바뀌었거든요. …… 고령자들도 아버지 자격으로 오시고 …… 자식들한테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손주 손자한테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 나이는 60 넘어가면 그만두게 돼 있는데, 참가자들은 70명 넘어 오다 보니까 공감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참가자8).

아버지 학교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참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게 패스하거나 넘어가거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정말 많고요. 봉사자 수도 …… 2인 1조 봉사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갖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미루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2인 1조다 보니까(참가자8).

저는 그 운영 쪽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입주자 수가 적으면 봉사자 수가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 봉사자가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얻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비용 식대 캠프를 한다 하면 그 영성관에 어떤 숙박하는 비용 그렇게 해가지고(참가자1).

우리 아이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SNS도 있고, 휴대폰 문제라든지, 어떤 전자기기하고의 관련된 문제들이. 그런데 그걸 없애고 애들을 애를 또 키울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케이스들로 해서 좀 교육이 좀 어떤 사례든지 그렇게 좀 해서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아버지들이 그런 고민을 다 할 것 같거든요(참가자7).

마지막으로 아버지학교 후속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지속적 소통·교육·관계 강화를 위한 체계적 장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버지들이 자유롭게 경험과 가족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개방적 소통 공간이 요구된다. 둘째, 보수교육과 돌봄 프로그램 등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속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부부 단위의 정기 모임 운영을 통해 관계 회복과 유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적절한 훈련과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사회든 어디든 남자들끼리 대화는 증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회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여자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받은 아버지들은 전부 다 가정 얘기 자녀 얘기 이런 얘기는 어디서든 들을 수가 없는 거야(참가자3).

여러분들 말씀처럼 후속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호지부지되는 거죠. ……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머리 크고 아버지 나이가 돼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킵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머리 닫고서 하면 안 되거든요. …… 아버지 앞에 5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돌봄이라든지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것만이 커버되는 게 아니겠느냐(참가자8).

이 프로그램이 후속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가족 전부는 아니라도

최소한 이 아버지 학교는 부부 간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이후에 부부 정도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인 어떤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을 만나서 그 안에 그동안의 삶을 나눌하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이이게 꾸준히 연속적으로 가지 싶습니다(참가자1)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가 조금 체계적으로 좀 해서 그 안에 좀 녹여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참가자7).

3. 선택 코딩

선택코딩은 근거이론에서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통합하고 정교화하여 하나의 설명적 이야기선(storyline)으로 묶어 가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식별하고, 그 범주와 다른 범주들(원인·맥락·중재·전략·결과)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며, 관계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남은 범주를 축약·보완하여 이론적 통합을 완성한다(Strauss, & Corbin, 2014: 196).

1) 핵심범주(Core Category)

본 연구는 선택코딩을 통해 신앙 공동체 경험을 매개로 한 가족 중심적 아버지상의 재정립과 관계회복을 핵심범주로 확정하였다. 이어 축코딩에서 도출한 범주들을 핵심범주에 체계적으로 귀속시켜 이야기선을 구성했다. 본 연구의 자료 전반을 관통하는 흐름은 과거 권위와 침묵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상이 정서적 소통, 책임의 분담, 그리고 술선수범을 중시하는 아버지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 매개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 경험으로, 편지쓰기, 세족례, 나눔, 허그 및 대안적 신체 접촉, 축복기도 등과 같은 상징적·체험적 활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변화를 촉진하였다. 그 결과는 개인적 수준(자기 동일시와 아버지 정체성의 재평가), 가족 수준(대화와 신뢰 회복), 신앙 공동체 수준(본당 차원에서 아버지 모임 필요성 및 실천의 변화)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개인-가족-신앙공동체’의 삼각 구도 속에서 ‘정체성’(나는 어떤 아버지인가)과 ‘관계’(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재구성하는 과정적 변화로 정의된다.

2) 통합적 이야기선(Storyline)

참여자들의 과거 경험을 관통하는 부정 스크립트는 ‘등짝 같은 든든함’이라는 물리적 보호의 이미지와 동시에 ‘과묵·권위’, ‘부재·약속 불이행’, ‘통제·규율’로 요약되는 전통적 규범에 의해 조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스크립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신뢰를 제공했으나 정서적 교류를 억제하고 위계적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관계 긴장과 단절을 초래했다. 상실과 폭력의

기억은 분노·두려움 등 부정적인 정서를 남겼고, ‘그처럼 되고 싶다/그렇게는 살지 않겠다’는 양가적 동일시를 낳았다. 이후 세대·생애주기 변화가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은 과거 아버지의 처지와 선택을 재평가하게 되었고, 현재 자신의 삶에서 동일한 회피·과묵·권위의 패턴이 반복됨을 자각하였다. 이 메타인식은 아버지학교라는 구체적 경험을 매개로 가속되며, 부성에 대한 자기성찰과 변화 필요성의 인지로 이어졌다.

매개적 개입으로서의 아버지학교는 정서·행동의 전환을 촉발하는 예식과 과제를 제공하였다. 허그, 편지쓰기 등 신체·정신적 접촉면을 넓히는 과제와 세족례, 축복기도 같은 상징적 예식, 역할 바꾸기와 나눔 등 참여적 활동은 칭찬·감사·사과의 표현을 촉진하고, 결심문 작성과 토의를 통해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라는 정체성 질문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이해는 관계적 실천 역량으로 번역되었다. 프로그램 이후 참여자들은 감정표현·인정·칭찬의 일상화, 가사·양육·신앙 실천에서의 솔선수범하고, 가족 중심의 시간 배분, 가정 내 축복기도와 정기 대화의 정착 등을 통해 새로운 스크립트를 생활 맥락에 통합했다. 이는 권위·침묵·통제를 상호성·개방성·참여성으로 대체하는 관계 재구성의 실천적 기제로 작동하였다.

결과는 개인-가족-공동체의 다층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개인 수준에서 부정적 동일시는 헌신·책임·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 요소를 선별적으로 계승하는 선택적 동일시로 전환되었고, 정체성 서사의 재구성이 심리적 안정감과 역할 몰입을 강화했다. 가족 수준에서는 정기적 대화와 가정 의례의 실천을 통해 신뢰와 공감의 확장되고, “쉬고 싶음→말다툼→술→침묵”의 악순환이 완충되었다. 공동체 수준에서는 아버지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장(場)이 재발견되면서, 본당·교구 차원의 재개·후속·보수교육 및 정기 모임 등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가정 내 실천이 공동체 문화로 파급되는 선순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변화의 지속에는 표준화-맞춤화-지속화의 삼박자가 요구된다. 핵심 활동(축복기도, 편지쓰기, 신체적 접촉 등)의 일관된 제공을 통한 표준화, 생애주기·가족구성·신앙 수준에 따른 내용 조정의 맞춤화, 그리고 후속 모임·보수교육·동료 네트워크를 통한 반복·리마인드-상호 격려의 지속화가 결합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후속 프로그램 부재 등 환경적 제약은 이 삼박자의 구현을 저해하였기에, 제도적 지원과 운영 인프라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이야기는 권위·침묵 중심 부성 스크립트의 균열-아버지학교라는 체험적 매개-정서·행동 전략의 생활 적용-개인·가족·공동체의 재정렬로 이어지는 연쇄적 변화 과정으로 구조화되며, 핵심범주는 ‘개인-가족-신앙공동체’ 삼각 구도 속에서 정체성(나는 어떤 아버지인가)과 관계(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재편성하는 과정적 변화로 규정된다. 이는 선택코딩의 중심 논지를 지지하며, 향후 실천 모형 설계와 후속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른 아버지상과 역할을 실천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교회 문헌 고찰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봉사자 및 참가자 경험 분석을 종합하였다. 핵심 발견은 다음 두 층위로 요약된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와 봉사자들은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아버지상에 대한 명시적·체계적 교육이 부족하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고, 아버지학교가 그 공백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보여준 매개로 작동한다고 밝혔다. 둘째, 프로그램 참가와 봉사 이후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른 아버지상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월등히 향상됐다고 단정할 증거는 찾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리적 지식의 축적보다는 정서·관계·실천의 층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핵심 질문은 가톨릭교회의 아버지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 교육 참가 이후 변화된 모습과 영향을 미친 요소, 프로그램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이다.

1)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는 아버지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

참가자 다수는 신앙생활을 지속했음에도 아버지상에 대한 명시적 교육의 기억이 희박했다. 가톨릭교회 아버지상에 대한 인식은 ‘의로움·희생·자비’ 같은 규범적 표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구체적 덕목(훈육과 자비의 균형, 가정 안 신앙 리더십의 실천)으로 확장하지 못했다. 이는 교회 차원의 메시지가 윤리적 당위로는 분명하나 아버지의 역할 행동 스크립트(언어·예식·의사결정·정서 규제)로 충분히 매핑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아버지학교를 통해서야 비로소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는 구체적 언어와 과제를 접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아버지에 대해 제시해 온 신학적 이상은 실천으로 하향식 번역되는 중간 매개가 부족했고, 아버지학교는 그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웠다.

2) 프로그램 참여가 아버지 역할 변화에 기여한 교육 요소와 변화 양상

역할 변화를 이끈 작동 기제는 교리적 강의보다 체화된 예식과 반복된 프로그램과 과제였다(편지쓰기, 세족례, 허그, 축복기도, 역할바꾸기, 나눔 등). 이 요소들은 감정표현을 정당화·안전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인 접촉과 칭찬·인정의 언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라는 아버지의 정체성 물음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변화는 인지보다 행동·정서·관계에서 먼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재배치, 대화 빈도와 질의 향상, 갈등 국면에서의 감정 조절과 관계의 회복력 향상, 가정 내 신앙 언어(축복기도 등)의 일상화화 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가톨릭적 아버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직접 확인되기보다는 역할 수행의 양식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아버지학교의 강

점은 교리를 행동으로 번역하는 촉매로서의 효용에 있다.

3) 역할 변화의 어려움과 지속 기간

역할 변화는 평소 하지 던 언행에 대한 낯설음, 반복의 교육과 과제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대·내외적인 맥락에서 제약이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우선 신체적·정서적 표현(허그, 칭찬, 축복기도)은 초기에는 어색함과 가족 구성원의 상이한 수용성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둘째, 운영과정에서 교육의 반복성과 콘텐츠 중복은 참여 동력의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셋째, 대·내외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아버지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끌고오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교육 효과에 대한 지속 기간이 개인 및 가족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아버지학교의 재개와 후속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4) 지속 가능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방안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질적연구를 통해 아버지교육의 ‘인지-정서-행동’ 차원을 관통하는 다층적 프로그램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아버지학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참가자 및 봉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관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모듈(편지쓰기, 소그룹 나눔, 상징적 예식, 가정 축복기도 등)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단계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아버지상에 대한 이해와 일상 적용 가능성 및 용이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듈을 간명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변화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운영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자 맥락에 부합하는 맞춤형이 필요하다.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시나리오·사례·과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들이 맞이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과 교육 목표를 유목화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교육의 동일한 목표가 참가자들이 속한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셋째, 학습된 변화를 생활습관으로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속화 장치가 요구된다. 분당 단위의 후속 모임(아버지학교 수료자, 부부·가족 동반 모임), 보수교육, 심화교육 등을 체계화하여 ‘반복-리마인드-동료성’의 순환을 상시 운용함으로써 아버지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공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 참가자들 대상으로 아버지학교 평가척도를 개발하여 교육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한다면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맞춤화·지속화·평가의 통합 프레임은 가톨릭교회 아버지상을 생활세계의 구체적인 행위로 변환하는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른 아버지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 고찰과 기존 프로그램 및 참여자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른 특성은 아버지교육의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회가 강조하는 ‘부성의 공동체적 책임성’은 아버지의 역할을 단지 생계 책임자로 국한하지 않고, 정서적이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까지 포함하도록 교육 방향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기반은 아버지교육의 목표 설정뿐 아니라, 교육 방식에도 고유한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들은 아버지학교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아버지상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차원의 실천에서 실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학교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는 통합적 교육체계 구축할 필요하다. 연구 참가자들은 기존 신앙교육 과정에서 교회가 제시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낮았고 일상 적용에도 한계를 보였다. 이에 아버지학교와 같은 체험·실천 중심 교육과 더불어 교회문헌을 토대로 한 정합적 이론 교육의 병행한다면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학교의 강의 및 콘텐츠 내용에 아버지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른 아버지교육은 명시적 비전-목표-전략 추진체계의 정립을 통해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교육의 방향은 개별 프로그램 차원의 개선을 넘어 교구 가정사목의 비전과 방향 설정에서 의미를 부여받아야 한다. 상위 사목 비전이 선행될 때에만 아버지교육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회의 성화와 공동선 증진’과 일치하는 전략적 하위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단위의 단편적 효과를 교구·본당 차원의 지속 가능한 변화로 전환할 수 있다. 교구적 차원의 목표 구조와 운영 원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부산교구처럼 내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교육 자체가 소실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교육의 비전은 가톨릭교회 문헌이 제시하는 부성(父性)의 덕목과 가정교회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토대로 중장기 목표 체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목표는 개인-가족-본당 공동체의 다층 효과를 염두에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실행할 전략 추진체계는 거버넌스(교구-본당-평신도 리더십의 역할 분담), 콘텐츠(교리적 이론과 가정 맥락 실천의 통합), 인력 양성(퍼실리테이터·멘토링 체계), 평가와 피드백(관계·행동 중심 지표)의 축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실천 중심의 변화’는 있으나 교리적 이해의 심화는 제한적’이라는 간극을 체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의 확산(교구 전파), 지속(후속·보수 교육), 정합(교회 사명과의 일치)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 결국, 아버지교육의 비전과 전략 추진체계는 단일 프로그램의 성과를 넘어 교

회 공동체의 문화로 아버지교육을 내재화하는 사목적 인프라의 핵심 요건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질적 자료로써 근거이론을 사용하였으며 향후에는 장기 추적조사나 양적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과 실천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언은 아버지를 단순한 역할 수행자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를 닮은 영적 지도자로 양성하고자 하는 가톨릭 교육의 핵심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atholic Church,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13).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Catholictimes (2013. 5. 7.). [St. Joseph's Month Special Feature] Exploring the St. Joseph Father School. Retrieved Agu 10. 2025, from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1403110083645>.
- CBCK(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1989.8.15.). John Paul II, Redemptoris custos. Retrieved Agu 14. 2025, from <https://cbck.or.kr/Documents/Pope/13012892>.
- Francisco. *Amoris Laetitia*. CBCK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2016). 사랑의 기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Han, C. G. & Kim, Y. S. (2016). A Phenomenological Study on Participant Experience to the Father Education-Focusing on Duranno Father School. *Korea Counseling Association*, 8(3), 469-492.
- Hyun, J. H & Oh, K. H. (2008). A Study on the Problem and Trends of Korean Father Research.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8(3), 105-121.
- Jeong, J. h. & Lee, H. J. (2024). Analysis of the Experiences and Needs of Fa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Staffs, and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the Father-Child Camp.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9(2), 291-319.
- John Paul II. *Familiaris Consortio*.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1981). 가정 공동체에 관한 교황 권고.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Kang, K. J. & Lee, Y. J. (2010).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the Effec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Fa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8(4), 89-101.

- Ken C. (2011). The Modern Fatherhood Movement and Ministry to Fathers in the Faith Community. *Journal of Discipleship and Family Ministry*. 1(2), 26-33.
- Kim S. M. (2000). Men's Ministry in the Church: Lord, I Am a Father - Duranno Father School. *The Living Waters*, (557). 12-17.
- Lamb, M. E. (2010).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Hoboken, NJ: Wiley.
- Lee, S. J. (2022). The Making of "Normal Family" in Korean Protestantism: Focused on the Strategy of Otherization and Subjectification. *Studies in Religion*. 82(1), 87-112.
- Min, D. K. & Yoo, H. N. (2010). Logic Model-based Analysis of Effects and Their Sustainability of Duranno Father School. *Logos Management Review*, 8(2), 159-178.
-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St. Joseph Father School. Retrieved. Agu 10. 2025, from <https://stpaulchung.org>.
- Strauss, A. L., & Corbin, J. M.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California.
- Williams, R. H. (2000). Introduction: Promise Keepers: A Comment on Religion and Social Movements. *Sociology of Religion*, 61(1), 1-10.